인격(Person) 개념에 대한 고찰: 피터 싱어와 화이트헤드의 대화를 중심으로

김재현(계명대) · 허선호(계명대)

【한글요약】

벤담의 공리주의와 로크의 인격 개념을 급진적으로 적용한 피터싱어의 인격개념은 기존 생각의 틀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왜냐하면 개체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욕망을 지닌 자의식적 존재 따라서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존재에 대해 인격이라는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등동물이 인격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간과 인격을 혼합해서 인간에게만 적용하던 기존 일반가치세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실질적 목적과 결과에 윤리적 초점을 두고 전개된 싱어의 한계는 근대적 인격 관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격성에 모든 동물이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그 외의 다른 여타 개체는 제외에 되어있다.

화이트헤드의 인격 개념은 싱어의 인격 개념보다 파격적이다. 그는 인격을 인간, 의식, 심지어 생명과도 구분한다. 화이트헤드에게는 비인간적 인격, 비의식적 인격, 비생명적 인격이 존재하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인격과 의식을 구분지었다. 인격은 의식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격을 기반으로 의식이 도출된다. 또한 그의 인격 개념은 인격적 질서를 의식이나 합리성에 두지 않음으로써 신체와 인격을 연결시킬 근거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비생명적 인격과 “살아있는

인격”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동물뿐 아니라 사물에 이르기까지 윤리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준다.

두 사람 모두 인간과 인격을 구분, 통상적 인격 개념의 틀을 벗어나 고등동물에게까지 적용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을 볼 수 있다. 한편 화이트헤드의 인격개념은 싱어의 근대적 인격개념의 범위를 뛰어넘어 우주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생명과 비생명적 특성으로 인격개념을 세분화하고 있다. 세계 구성요소와 모든 생명체를 하나의 유기체적 연관성을 지닌 테두리 내에서 조명할 때, 미립자의 소통을 알려주는 양자물리학, 동물 및 자연에 대한 긴밀하고 급증하는 관심과 관계양상 등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싱어를 넘어서서 화이트헤드의 인격개념은 미래사회를 향한 깊고 풍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포스트 휴먼(post-human)상황의 도래를 짐작할 수 있는 21세기에는 전통적인 기계-동물-인간의 구분과 위계가 사라지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뒤섞이는 충격적인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그 윤리적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인격에 대한 물음은 더욱 더 깊어지고, 절실한 물음으로 부상하게 된다. 싱어와 화이트헤드의 ‘인격’ 개념은 동물 및 식물과 무생물, 기계적 및 본래적 인간의 상호관련과 작용의 얽힘에서 인격을 논의할 수 있는 존재론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 특히 화이트헤드의 인간, 의식, 그리고 생명과 구분되는 순차적으로 사회화된 사회로서의 ‘인격’으로서의 개념은 차후에 포스트 휴먼적 상황에서 윤리를 논구할 때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주제어] 화이트헤드, 피터 싱어, 인격, 포스트휴먼, 과정철학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실천적 윤리철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와 과정철학자 화이트헤드(Alfred N. Whitehead)의 인격 개념을 고찰하고 양자 사이의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인격 개념을 새롭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인격 개념은 최근 생명 윤리학의 중요한 이슈들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포스트 휴먼(post-human)[1] 상황을 대처함에 있어서도 지극히 중요한 개념이다.

사실상 싱어와 화이트헤드는 인격 개념과 관련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들이다. 싱어는 근대 철학자 로크(John Locke)의 인격 개념을 수용하되 그것을 급진적으로 동물과 인간에게 적용하여 커다란 윤리학적 논쟁과 스캔들을 불러일으켰다. 싱어는 고등동물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인격이 오직 인간과 연관

1) 최근 포스트 휴머니즘(post-humanism) 담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벌써부터 성급하게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 담론을 뒤이을 주요한 담론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충격은 기술의 발달(유전공학, 나노기술, 사이보그학, 인공지능학 등)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 기술 발달의 결과는 다양한 철학적 존재론적 형이상학적 물음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상적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포스트 휴먼 상황은 필연적으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야기시킨다. 유전 공학을 통해서 인간 유전자의 변형이 극심해져 거의 다른 종에 육박하는 변형이 초래될 때 우리는 그 존재를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인간의 몸에 인공보철물이 계속해서 개입해 들어와 인공보철물의 요소가 원래의 신체보다 더 많아질 때 우리는 그 존재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이러한 문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물음뿐 아니라 윤리적 물음도 불러일으킨다. 포스트 휴먼에 관해서는 다음의 저서들 참조. D. Babin,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Post-Human 1세대를 위한 안내서』, 양영란 역(서울: 궁리, 2007). S. Herbrechter, 『포스트휴머니즘: 인간 이후의 인간에 관한 문화철학적 담론』, 김연순, 김응준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서울: 아카넷, 2014).

된다는 통상적인 생각에 도전하여 큰 충격을 발생시켰다. 화이트헤드는 싱어보다 먼저 인격 개념을 고등 동물에 적용시켰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격 개념을 사물에게까지 적용시켰다. 화이트헤드도 '인격의 통일성 문제'라는 지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2)]

급진적이고 실천적인 윤리 철학자와 광범위한 우주론을 모색했던 심오한 형이상학자 사이의 대화는 인격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글에서는 먼저 싱어의 동물 해방론과 인격론을 고찰한 후에 화이트헤드의 인격론을 살펴보고, 이후에 양자 사이의 대화를 시도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시켜 나갈 것이다.

2.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과 인격론

최근 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동물이 지닌 생명력, 동물이 지각하는 고통, 인간과 동물 간 관계경험에서의 교감 특성 등 다양한 이슈들이 속속들이 대두되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동물보호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위한 윤리적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대표주자로 피터 싱어와 톰 레간(Tom Regan)[3)]

2) C. Hartshorne, "Personal Identity from A to Z," Process Studies vol. 2 (1972): 209-215. 문창옥,「과정철학에서 인격적 동일성의 문제」,『화이트헤드 철학의 모험』(서울: 통나무, 2002), pp. 160-188. 남순예,「유기체 철학에서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고찰」,『철학논총』제68집 제2권 (2012): pp. 201-220.

3) Tom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Berkeley: Univeristy of California Press, 1983) 참조. 레건은 칸트가 합리성과 도덕적관심의 가치가 있는 존재를 연결시킨 것에 도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목적 그 자체로서 취급되어야 할 존재는 '삶의 주체(subject-

을 들 수 있다.

이중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 서서 벤담(Jeremy Bentham)의 견해를 급진적으로 재해석하여 기존에 인간에게만 적용되던 윤리적 기준을 동물에게까지 적용하자고 주장해서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윤리적 도전과 충격을 주었다.[4] 싱어는 『동물 해방』 이후에 나온 저서인 『실천윤리학』에서 로크(John Locke)의 인격 개념을 급진적으로 적용해서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피터 싱어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실질적인 윤리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따라서 싱어는 목표 지향적 입장을 취하면서 "윤리적 삶이란 적극적으로 목적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궁구하는 삶"이라고 밝힌다.[5] 고리타분한 탁상공론의 이념적 세상에서 탈피하여 보다 실질적인 목적과 결과에 윤리적 접근의 초점을 두겠다는 말이다.

이러한 싱어의 태도는 평등에 대한 견해에 잘 드러나 있다. 싱어는 평등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실질적인 평등에 대한 입장보다는 "어떻게 처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perscription)"으로 파악한다.[6] 따라서 개인이 지닌 현실적인 능력이나 입장에 따라 이러저러한 고려를 제공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전제를 떠나 어떻게 잘 정리정돈해서 대우를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상에 대한 처우라는 측면에서 규정되는 평등을 싱어는 동물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적인 동물에 대한 인간

---

of-a-life)가 되는 존재'이다.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욕구·지각·기억·감정 등 복잡한 일련의 특징들이 포함된다."

4) P. Singer, 『동물해방』, 김성한 역 (연암서가, 2012).

5) Peter Singer,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기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실천윤리』, 노승영 역 (시대의창, 2014), p. 270.

6) Singer, 『동물해방』, p. 33.

혹은 인간에 대한 동물의 가치 동등성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공리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는 싱어는 “공리주의적인 논리를 따라 종을 차별하는 것이 전체 복지의 감소를 가져오는 결과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특히, 벤담의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윤리의 적용 범위가 동물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피력한다.[8] 공리주의 입장에서 파악되는 쾌락이나 고통은 한 개체의 차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그 행위와 관련된 당사자 전체의 쾌락이나 고통”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같이 평등하게 한 사람씩으로 계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9] 그러므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어떤 행위가 동물 전체에게 유발하는 고통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요소가 되는데 싱어는 이를 동물윤리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인간과 동물에 대한 서구전통은 결코 양자 간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나같이 종속과 수단적 차원에서 인간에 대한 동물의 위치와 입장을 말하고 있다.[10]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것을 중심으로 종(種)의 차이, 지능의 차이, 사회적 역할 및 가치 등의 차이로 인해 동물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최근 생태환경의 파괴의 심각도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전환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바 싱어가 관철하고 있는 논지는 단순한 동물보호

---

7) 하대청, 「동물윤리와 과학적 창의성 사이의 정합적 관계: 동물행동학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3:3 (2009), p. 267.
8) 박찬구, 「동물권의 문제와 상생의 생명윤리」, 『윤리연구』 83 (2011), p. 59.
9) 서양근대철학회, 『서양근대철학』(창작과비평, 2001), p. 84.
10) 박찬구, 「동물권의 문제와 상생의 생명윤리」, 『윤리연구』 83 (2011), p. 56.

의 차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동물이 느끼는 고통과 쾌락이라는 감정이 등장하고 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감정은 그 강도에 따라 파멸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동물 역시 인간처럼 감정에 대한 지각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싱어의 입장에서 볼 때 "감수 능력을 지니는 동물들은 이익, 즉 고통을 당하지 않을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을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고려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11] 이러한 견지에서 그는 "'이해에 대한 평등 고려의 원칙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을 그의 윤리학의 목표"로 제시한다.[12] 이것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우리들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13] 그러므로 싱어의 논지에서 "윤리적인 것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14]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윤리적일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익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싱어가 제시하는 이해(이익)평등고려에 대한 원칙이며 동물윤리에까지 확대적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동물은 사람과 같이 고통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싱어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보다 하등하다고 여겨왔고 충분히 지금도 그러한 동물에게 조차 그들 나름대로의 이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고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을 가

---

11) *Ibid*., p. 59.
12) 배국원,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 사상」, 『과학사상』 38 (2001), p. 110. 재인용.
13) 정창록, 「싱어의 이익평등고려의 원칙과 적용의 문제점」, 『동서사상』 10 (2011): p. 155.
14) *Ibid*., p. 156.

진 사물들은 모두 각자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15] 고통을 지각하고, 인간과 같이 이해를 지니고 추구하는 개체라는 차원에서 동물이 인간과 평등적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평등에 관한 싱어의 입장은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건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대략적이나마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취급할 것을 요구한다."[16] 종합적으로 싱어의 논지는 "동물들은 고통을 느낄 수"있으며 이 고통이 인간의 고통에 비해 별다른 중요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7] 따라서 그의 주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고통을 절감하고 쾌락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과 관련되는 이해이며 평등은 여기에 대한 평등을 의미한다.[18]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는 이익이 동물에게도 있음을 인간이 마치 자신의 입장이 되어 동등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윤리적인 것이며 더 공리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싱어가 이처럼 이해평등고려의 입장을 내세우며 윤리적 관점을 동물에까지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인격(person)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싱어는 자신의 인격론을 전개시킬 때 로크의 인격 개념을 참고한다. 로크는 『인간지성론』에서 인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인물(인격, Person)이란 이지와 성찰을 지니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하는 지능이 있는 자,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똑같이 사고를 하는 것이고, 이와

15) 배국원,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 사상」, p. 111.
16) Singer, 『동물해방』, p. 39.
17) *Ibid*., p. 49.
18) 정창록, 「싱어의 이익평등고려의 원칙과 적용의 문제점」, p. 164.

같은 것은 사고와 분리할 수 없는, 사고에 본질적으로 생각되는 의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19]

싱어는 위에서 볼 수 있는바 존 로크의 person 정의를 고찰한 후 로크의 인격 개념 가운데서 "합리성(rationality)과 자아의식(self-consciousness)"을 추출한다. 또한 싱어에 따르면, 인격체는 "자신이 과거와 미래를 가지는 개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존재이다. 싱어에게 있어서 "자의식적인 존재는 자신이 과거와 미래를 가지는 개별적 존재"이다.[20]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적 연속성 가운데 독립된 개별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이것은 그 존재의 생명에 대한 열망과 관련된다. 싱어에 의하면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고 활성화하려는 "생명에의 권리"는 살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하며, 이 욕망은 "개별 존재로서의 생존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데 자의식적인 존재 즉 "인격체만이"지닐 수 있는 것이다.[21] 결과적으로 싱어가 주장하는 인격체는 시간적 연속성 안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지닌 존재이며 이를 욕망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인격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의식 특성은 동물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다. 싱어는 적지 않은 동물들이 미래라는 시간요소를 활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동물 역시 하나의 인격체임을 주장한다.[22]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합리성과 자의식을 급진적으로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인격체라는 개념을 '종차별주의'를 넘어서 합리적으로 적용시키고자 한다. 여

19) John Locke,『인간지성론』, 추영현 역(서울: 동서문화사, 2011), p. 406.
20) Peter Singer,『실천윤리학』, 황경식, 김성동 역(연암서가, 2013), p. 146.
21) *Ibid*., p. 155.
22) *Ibid*., p. 186.

기에서 그의 이론의 급진성이 나타난다. 즉, 합리성과 자의식을 가진 존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욕망을 가진 존재는 돼지라도 인격체이지만, 합리성과 자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존재는 무뇌아나 태아라도 비인격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무뇌자를 살리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했으며, 태아나 아직 합리적 의식을 가지지 못한 영아의 살해를 정당화해서 큰 반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3. 화이트헤드의 인격 개념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인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기본적인 개념인 현실적 존재(actual entity), 결합체(nexus), 그리고 사회(society)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현실적 존재가 다자에서 일자로 통일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결합체가 되고 결합체 중 공통의 형상인 한정 특성을 가진 것을 사회라고 부른다. 아래에서는 주로 화이트헤드 자신의 용어를 통해 현실적 존재로부터 인격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한다.

현실적 계기(actual occasion)라고도 불리는 현실적 존재는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사물”이다. 현실적 존재들 가운데 등급과 차이가 있지만 신이나 텅 빈 공간의 먼지나 모두 현실적 존재라는 동일한 지평에 있다.[23] 현실적 존재는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지만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를 파악(prehension)으로 분석한다. 파악은 현실적 존재가 <벡터적 성격(vector charactor)>을 가지고

23) Alfred N. Whitehead,『과정과 실재』, 오영환 역(서울: 민음사, 2009), 78.

있음을 의미하며, “거기에는 정서, 목적, 가치판단, 인과관계가 포함되어 있다.”[24] 현실적 존재들은 서로 서로를 파악한다. 이러한 사태를 공재라고 부르며, “현실적 존재들의 공재(togetherness)라는 이와 같은 개체적 사실은 모두 결합체라 불린다.”[25]

현실적 존재들의 공재는 상호 내재와 상호 제약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상호내재와 상호제약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6]

> 임의의 현실적 계기의 한 조는 계기들의 상호내재에 의해서 통일되어 있다. 한 조가 통일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계기들은 서로를 제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쌍의 계기들의 이와 같은 상호내재와 상호 제약이 대칭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동시적인 것들을 도외시했을 때 한쪽 계기는 다른 쪽 계기의 미래 속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행하는 것은 작용인의 양태에 따라 후속하는 것 속에 내재하게 될 것이며, 후속하는 것은 예기의 양태에 따라 선행하는 것 속에 내재할 것이다. 일군의 계기들을 이처럼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나 결합체이다.

한 조가 통일되어 있는 범위 ”결합체는 현실적 존재들의 상호내재(mutual immanence)라는 특성 외에 어떠한 질서도 전제하지 않는다. 결합체는 일반적인 결합성을 예증할 뿐이다.[27]

이 결합체가 고유한 질서를 가지게 되면 ‘사회’라고 불린다. 사회를 도입한 이유는 결합체에서 간과된 질서의 요소를 고려하기

---

24) *Ibid*., 79.
25) *Ibid*., 80-81.
26) Alfred N. Whitehead,『관념의 모험』, 오영환 역(파주: 한길사, 2005), 311.
27) *Ibid*., p. 318.

위함이다. 화이트헤드는 사회를 “하나의 ‘사회’라는 것은 어떤 유형의 ‘사회 질서’를 예시 내지 분유하는 결합체”라고 정의한다.[28] ”화이트헤드는 사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29]

> 결합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회적 질서를 향유하고 있다. i) 그 결합체에 포함된 각 현실적 존재들의 한정성에 예시된 공통 요소로서의 형상이 있을 것, ii) 그 결합체의 각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을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합체에 부과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이 공통 요소로서의 형상이 결합체의 각 구성원에서 생겨나고 있을 것, iii) 이때의 파악들이 그 공통 형상에 대한 긍정적 느낌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해서 재생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을 것 등이다. 그러한 결합체를 사회라 부르며, 거기서의 공통 형상은 그 사회에 대한 한정 특성(defining characteristic)이다.

이상과 같이 설명된 사회 가운데서 결합체들이 <순차적으로>(serially) 질서화할 때 그것을 화이트헤드는 <인격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30] 화이트헤드는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속에 실현된 결합체들이 순수하게 시간적이고 연속적인 그런 일반적 유형의 사회는 ‘인격적’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는 인격(person)이라고 불릴 수 있다.”[31] 사회 가운데서 인격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회는 순차성, 시간성, 그리고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화이트헤드는 순차성, 시간성, 연속성을 가진, 즉 순차적 질서화(serial ordering)를 가진 결합체를 <존속하는 객체>라고 부른다. 이는 <인격>의 다른 말이다.[32]

---

28) *Ibid*., p. 320.
29) Whitehead,『과정과 실재』, p. 108.
30) *Ibid*., 109.
31) Whitehead,『관념의 모험』, p. 323.

이러한 인격 개념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격적 동일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화이트헤드 자신도 자신의 인격론이 인간의 일반적인 경험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3] 인격적 동일성의 문제는 하츠혼(C. Hartshorne)이 다룬 이후로 화이트헤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츠혼은 지속하는 자아를 일시적인 자아들의 파생적인 통일체로 보았다.[34] 하츠혼이 차이의 통일성에 있어서 차이의 요소를 강조했다면, 차이의 통일성에 있어서 통일성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화이트헤드의 인격이 통일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정도로 내부에 차이의 요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인격적으로 질서화된 사회"의 예는 "양자(quantum), 원자, 분자, 살아있는 세포, 그리고 동물의 정신이다".[35] 물론 고차원적인 인격이 있다. 화이트헤드는 그것을 "살아있는 인격"(a living person)이라고 부른다. 흔히 말하는 정신이나 영혼을 뜻한다. 양자(quantum)와 인간 사이에는 존재론적 이원론은 없지만 정도의 차이를 넘어선 종적 차이가 있다.[36] 이렇게 보면 화이트헤드의 인격 개념은 동물마저도 넘어서서 사물에까지 이른다.

---

32) Whitehead, 『과정과 실재』, p. 109.

33) Whitehead, 『관념의 모험』, p. 295. "인간의 경험을 설명할 때 우리는 인격을 인간 경험의 계기들 간의 발생적 관계로 왜소화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통일성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떠한 철학도 인격적 동일성에 대한 학설을 제공해야 한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생애에 있어 누구나 어떤 의미로는 통일성이 있다."

34) Hartshorne, "Personal Identity from A to Z," pp. 209-215.

35) David R. Griffin, 『화이트헤드 철학과 자연주의적 종교론』, 장왕식, 이경호 역(고양: 동과서, 2004), p. 193.

36) *Ibid*., 223.

4. 싱어와 화이트헤드 사이의 대화

싱어와 화이트헤드의 인격 개념에는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양자의 인격 개념이 통상적인 인격 개념의 틀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두 철학자는 인간과 인격을 구분했다. person이라는 단어에는 인간과 인격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일반적인 이해에서는 인격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뜻을 연결해서 인간의 인격을 주로 생각했고, 주로 "고매한 인격"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인간의 품격을 지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와 같은 용례 이외에 인격이라고 할 때 지 · 정 · 의를 포괄하는 인간의 전체적 특성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격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인격을 뜻했다.[37] 그러나 싱어와 화이트헤드는 인간과 인격을 구분했다. 그리하여 인격 개념은 인간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고등동물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인격이라는 개념이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적용되는 일은 일반적으로는 생경한 일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다.

또한 두 사람은 인격의 개념을 동물에게 적용시켰다. 잘 알려져 있듯 싱어는 고등동물에게 인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이트헤드 역시 고등동물에게 인격을 부여했다. "척추동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은 인격적인 종속적 사회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체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 개는 어떤 의미로는 인격이며, 다른 어떤 의미로는 비인격적 사회이다."[38] "동물적 유기체가 다

37) 진교훈 외, 『인격: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격의 의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에 수록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person 개념은 인간과 관련해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38) Whitehead, 『관념의 모험』, pp. 323-324.

소간의 인격성을 갖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39] 화이트헤드는 동물이 혼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했고, 살아있는 인격의 개념에 동물도 포함시켰다.

싱어와 화이트헤드의 인격 개념을 살펴보면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적인 면모가 존재하지만, 차이점도 두드러진다. 두 철학자 사이의 차이점은 각자의 독특성을 부각시키면서 서로를 조명하는 역할을 한다.

피터 싱어의 실천 윤리학은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을 윤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즉, 그의 윤리학은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잠재성을 개발하고 그 함의를 이해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며, 구체적인 사례 적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과정 윤리학은 여전히 탐색되고 있는 도중에 있다.[40] 과정 윤리학은 현실적인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싱어의 개입과 실천 방식을 비판적으로 전유함으로써 과정 윤리학의 수립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싱어의 실천 윤리학은 화이트헤드가 가지고 있는 인격 개념의 급진성을 조명하고 부각시키는 것에 도움을 준다. 화이트헤드의 사상이 급진적이지만 온건한 외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

39) *Ibid*., 327.

40) 화이트헤드 윤리학은 이기적 개인주의(David Schindler), 도덕적 이해론(P. Schilpp), 결과론으로서의 공리주의(C. Palmer), 의무론적 윤리(J. Lango), 심오한 생태 윤리(D. Griffin)으로 다양하게 설명되어 왔다. 정윤승, 「A. N. Whitehead 과정 윤리학과 가치론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6. 존 캅은 화이트헤드 철학을 심층생태학(deep ecology)으로 간주한다. John B. Cobb, Jr. "Deep Ecology and Process Thought," Process Studies 30 vol. 1 (2001): 112-131. 과정사상과 동물윤리의 역사에 관해서는 Clinton Combs, "Historical Connections Between Process Thought and the Moral Consideration of Animals" Process Studies 42.2 (2013): 175-180 참조.

‘등급’의 개념을 설정하고 상식에 호소하기 때문이다.[41] 화이트헤드는 등급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결국에는 종적 차이가 존재하게 됨을 인정한다. 하지만 피터 싱어는 종차별주의를 비판한다. 물론 싱어의 종 개념과 화이트헤드의 종 개념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싱어의 종 차별주의 비판은 화이트헤드 독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등급의 개념과 종의 차이를 절대적인 차이로 간주하게 되면 화이트헤드 철학의 급진성은 삭감된다. 분명 화이트헤드가 등급의 차이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궁극적으로는 정도상의 차이이며 그 구성이 바뀌게 되면 종과 등급은 바뀔 수 있다. 화이트헤드의 세계는 창조성이 도입되어 새로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내재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이다.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이 제시하는 인격 개념은 싱어가 받아들이고 활용했던 인격 개념이 근대적 인격 개념이라는 것을 폭로해 준다. 싱어는 로크의 인격 개념을 토대로 합리성과 자의식을 중심으로 인격을 정의했다. 화이트헤드는 합리성과 자의식 이전의 순차적으로 질서화된 사회를 인격이라고 불렀다. 비록 인격 개념을 동물에게까지 적용했지만 싱어의 인격 개념은 그 자체로 보면 합리성, 자아, 그리고 의식을 강조했던 근대적 특성을 가지

41) 화이트헤드가 “보다 높은”(higher) “보다 낮은”(lower)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정도(degree)와 등급(gradations)을 말하는 것은 생태학적 평등주의(ecological egalitarianism)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과정사상을 환경윤리를 철학적으로 변호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섰다. Clinton Combs, “Historical Connections Between Process Thought and the Moral Consideration of Animals” Process Studies 42.2 (2013): p. 179. A. Cloots, 「화이트헤드와 들뢰즈: 사건을 사유하기」, 김재현 옮김 『얼굴 · 국가 · 사건: 들뢰즈/가타리와 사유하기』(대구: 한티재, 2012), pp. 256-257. 클루츠의 분석에 따르면 화이트헤드와 들뢰즈는 위계와 등급과 관련해서 서로 대치된다.

고 있다. 그리하여 신체에 대한 고려가 빈약하여 합리성과 자의식이라는 기준 하에서 무뇌아, 낙태, 그리고 안락사의 문제를 판단했다. 싱어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상식에 굴하지 않고 지적인 결론을 일관성 있게 전개시킨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문제가 근대적 인격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인격 개념은 근대 철학의 한계를 넘는 실천 윤리학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파격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싱어의 실천 윤리학과 비교해 볼 때 화이트헤드의 입장은 보다 온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화이트헤드의 인격 개념은 싱어의 인격 개념보다 파격적이다. 그는 인격을 인간, 의식, 심지어 생명과도 구분한다. 인격을 인간과 구분하는데 머문 싱어보다 더 멀리 나아간다. 화이트헤드에게는 비인간적 인격, 비의식적 인격, 비생명적 인격이 존재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이트헤드는 싱어와 마찬가지로 인격과 인간을 구분지었다. 그는 양자(quantum)로부터 동물의 영혼까지 이르는 다양한 존재를 인격이라고 불렀다.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화이트헤드는 인격과 의식을 구분지었다. 그는 이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반적인 언어의 용법에서는 인격이 의식을 암시하기에 인격이라는 용어가 오해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주었다. 인격은 의식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에게서는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인격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기반으로 해서 의식이 도출된다. 화이트헤드의 인격 개념은 인격적 질서를 의식이나 합리성에 두지 않음으로써 신체와 인격을 연결시킬 근거를 제공해 준다. 심지어 인격은 생명과도 구분된다. 그래서 화이트헤드의 인격 개념에는 비생명적 인격과 “살아있는

인격"의 구분이 가능하다. 화이트헤드의 인격 개념이 우리로 하여금 동물뿐 아니라 사물에 이르기까지 윤리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준다.

5. 결론

최근 윤리적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 세기 생태 윤리와 동물 윤리가 새롭게 부상하여 다양한 윤리적 토론을 유발시켰다. 21세기에는 소위 말하는 포스트 휴먼(post-human) 상황이 가까워짐으로써 윤리적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자연과 인간, 동물과 인간의 문제에 기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제 전통적인 기계-동물-인간의 구분과 위계가 사라지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뒤섞이는 충격적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인격에 대한 물음은 더욱 더 깊어지고, 절실한 물음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때 싱어와 화이트헤드의 대화는 인격에 대한 물음의 길에 신선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제 다가올 포스트 휴먼 시대에서 인격은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동물과 기계(사물)와 관련되어 고찰되어야 한다. 21세기에는 인간이 인격에 대한 심오한 존재론적 사고를 하며 동물 및 여타 사물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싱어와 화이트헤드의 '인격' 개념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유전적으로 심각하게 변이되어 인간이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느껴질 존재, 원래의 몸보다 인공보철이 더 많아진 존재, 인간의 가장 중추적인 부분인 뇌에 인공적 작업을 많이 가미한 존재, 인공지능

등에 대해서도 인격을 논의할 수 있는 존재론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 특히 화이트헤드의 인간, 의식, 그리고 생명과 구분되는 순차적으로 사회화된 사회로서의 '인격'으로서의 개념은 차후에 포스트 휴먼적 상황에서 윤리를 논구할 때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남순예, 「유기체 철학에서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고찰」. 『철학논총』 제68집 제2권 (2012): 201-220.

문창옥, 「과정철학에서 인격적 동일성의 문제」. 『화이트헤드 철학의 모험』. 서울: 통나무, 2002. 160-188.

박찬구, 「동물권의 문제와 상생의 생명윤리」. 『윤리연구』 83집. 2011.

서양근대철학회, 『서양근대철학』. 창작과비평, 2001.

배국원,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 사상」. 『과학사상』 38집. 2001.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서울: 아카넷, 2014.

정윤승, 「A. N. Whitehead 과정 윤리학과 가치론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정창록, 「싱어의 이익평등고려의 원칙과 적용의 문제점」. 『동서사상』 10집. 2011.

진교훈 외, 『인격: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격의 의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하대청, 「동물윤리와 과학적 창의성 사이의 정합적 관계: 동물행동학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3:3 2009.

Babin, D.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Post-Human 1세대를 위한 안내서』. 양영란 역. 서울: 궁리, 2007.

Cloots, A. 「화이트헤드와 들뢰즈: 사건을 사유하기」. 김재현 역. 『얼굴 · 국가 · 사건: 들뢰즈/가타리와 사유하기』. 대구: 도서출판 한티재, 2012.

239-266.
Combs, C. “Historical Connections Between Process Thought and the Moral Consideration of Animals” Process Studies 42.2 2013.
David R. Griffin,『화이트헤드 철학과 자연주의적 종교론』. 장왕식, 이경호 역. 고양: 동과서, 2004.
Hartshorne, C. “Personal Identity from A to Z,” Process Studies vol. 2 1972.
Herbrechter, S.『포스트휴머니즘: 인간 이후의 인간에 관한 문화철학적 담론』. 김연순, 김응준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Locke, J.『인간지성론』. 추영현 역. 서울: 동서문화사, 2011.
Regan, T. The Case for Animal Rights. Berkeley: Univeristy of California Press, 1983.
Singer, P.『동물해방』. 김성한 역. 연암서가, 2012.
_____.『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기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실천윤리』. 시대의창, 2014.
_____.『실천윤리학』. 황경식 김성동 역. 연암서가, 2013,
Whitehead, A. N.『관념의 모험』. 오영환 역. 파주: 한길사, 2005.
_____.『과정과 실재』. 오영환 역. 서울: 민음사,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of Person: Focusing on the Conversation between Peter Singer and Alfred N. Whitehead

Kim, Jae-Hyun(Keimyung Univ.) ·
Hur, Seon-Ho(Keimyung Univ)

The concept of Peter Singer's personality which radically combined Bentham's utilitarianism and Loeke's concept of personality gives a new frame for understanding what personality is. He insists that the concept of personality should be broadened to contain all being that has self-mechanisms to maintain itself and experiences pain and pleasure, which provides a basis for the higher animal interpreted as having personality. The concept consequentially reverberates the field of philosophy as it contradicts the traditional philosophy's point of view of personality—only human possesses personality. However, the limit of his philosophy still exists. The concept roots in the practical object and consequence in ethics and therefore is considered not free from the modern philosophy. Also, the concept of his personality could not contain all animals and other beings.

Whitehead's concept of personality is more radical than Singer's one. He distinguishes personality from human, consciousness, or even life. According to Whitehead, non-human personality, non-conscious personality, and even non-life personality could be in existence. He

distinguishes personality from consciousness. Personality exists even before consciousness and thus consciousness is derived from personality. His concept of personal order does not rely on consciousness or rationality, which could connect body and personality. This enables the distinguishment non-human personality from "life personality." This philosophy opens a new prospect that ethics could be applied to not merely animals but objects.

Whitehead and Singer, both approaches have a commonality distinguishing human from personality and making the range of personality more comprehensive. However, Whitehead's concept of personality not merely exceeds the limit of Singer's personality concept but also extends the domain of personality cosmically. Also, He differentiates the life personality from non-life personality in personality domain. Given the organic perspective becomes more important as quantum physics becomes spot-lighted and concerns of animals and environment becomes deeper, the concept of Whitehead's personality would provide a noble insight for the future socie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as post-humanism is estimated to dominate the world, it is very possible that the traditional division of human-versus-animal-versus-machine would become meaningless, which might cause a big confusion in the future society. Axiomatically, the ethical issues would become much more complicated than before. In such world, the question of personality may become more important. Singer and Whitehead's concepts of 'personality' could provide a ontological base for integrating human, animals, plants, and inanimate objects in the frame of personality. Especially, Whitehead's personality as the ordered and socialized society that differentiates personality from human, consciousness, or life could have many implications for ethical contemplation in post-humanistic society.

Key words : Whitehead, Peter Singer, Person, Post-Human, Process Philosophy

접 수 일 : 2014년 11월 2일
심사기간 : 2014년 11월 11일 ~ 1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1월 18일